

Symposium V-2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발치와 처치

류경호 원장
광주미르 치과병원



전치부에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관점이 훨씬 요구된다. 전치부에 있어 수복을 위해서는 주변 자연치아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치조골의 높이와 두께, 주변 치아들의 형태와 색깔, 연조직의 심미성 등이 적절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발치 후 치조골이 치유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시도하는 것도 순측골의 과도한 흡수를 막고 치은의 형태가 수축되는 현상을 막아 더 나은 심미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치은의 수축을 막기 위해 식립 즉시 임시 치관을 연결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연조직과 경조직의 상태에 대한 확신, 환자의 구강위생의 확보, 교합관계의 확립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임시 치관을 즉시 연결하는 경우 임플란트에 교합력이 가해지게 된다면 골유착에 실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시치아는 교합력이 가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위해서는 충분한 치조골과 연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먼저 치조골의 재생을 통해 결손된 치조골을 회복하고 그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에 우호적인 치조골과 치은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제에서는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고려해야 할 단독치아 및 다수치아 결손에 대한 생각들과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와 위치, 치은 및 순측골의 두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 방법에 대한 문헌고찰과 임상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광주미르치과병원 원장